

시간당 70mm 물폭탄... 경기·충북·강원 등 피해 속출

토사·산사태로 실종·사망 잇따라
충북·강원지역 열차운행 일시통제
배수로 역류에 마을 고립사태도

새벽부터 시간당 30~7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강원을 중심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기 안성 285.5mm, 충북 단양(영천) 279mm·제천 244mm, 강원 영월 201.7mm 등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경기 안성에서는 산사태로 주택 한 채가 매몰돼 주민 1명이 사망했고, 충북 충주에서는 소방서 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춘천·철원·화천·양구군 평지·홍천군 평지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등으로 1명 사망·2명 실종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안성시 일죽면의 한 양계장 건물과 주택이 토사에 매몰되면서 50대 주민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주민은 산사태 직후 집 밖으로 탈



2일 중부지역에 쏟아진 '물 폭탄'에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가 고립되고, 영덕리 둔대마을 회관 앞길도 유실돼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 /연합뉴스

출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이 주민의 아내와 딸 등 다른 가족 3명은 무사히 탈출했다.

안성시 죽산면에서도 산사태가 나면서 주택이 매몰됐다. 이곳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실종된 상황이다. 이날 오전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한 하천에서 피해 현장으로 출동하던 충주소방서 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송 모

(29) 씨로 추정되는 이 대원은 하천물이 불차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다가 지반이 침하하면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구조대를 보내 사고 지점과 하천을 따라 실종자를 찾고 있다.

강원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에서도 한 주택 일부가 토사 유출로 파손됐다. 이곳에서 잠을 자던 81세 할머니와 11세 손녀가 방에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

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이들을 구조했다.

◆저수지 범람에 대피령... 마을 고립도

경기 이천에서는 이날 산양저수지 등 일부가 무너지면서 광주와 수원의 주택들이 물에 잠겼다. 이천시는 오전 7시 30분께 독 붓고 신고를 받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켰다.

충북 충주시 엄정면에서는 폭우로 배수구가 역류하면서 원곡천 주변 주택 침수가 잇따랐다. 오전 5시 20분께 80가구 주민 120여명이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 주천저수지도 만수위에 도달했다. 음성군은 오전 8시께 저수지 인근 원당리와 주천리 350여가구, 700여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의 지방하천인 성산천도 범람 위기에 놓이면서 양덕3리와 용성리 301가구 530여명의 주민도 대피했다. 또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의 오갑천 등 일부가 유실되면서 감곡·삼성면 등에서는 주택·과수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토사 유실·하천 범람에 도로·철길 끊겨

이날 새벽 강원·충청 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철도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오전 6시부터 충북선과 태백선 철도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영동선 역시 현동~분천역 간선로에 토사가 쌓이면서 오전 8시 30분부터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중앙선 원주~영주역 열차도 오전 9시 30분부터 다니지 못하고 있다.

오전 3시 10분께 충주시 양성면 지당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중원터널 부근에서 토사가 유출됐고, 오전 5시 27분께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제천휴게소 부근에서 토사가 유출돼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제천~평택 고속도로 평택 방향 천등산 부근에서도 토사가 비탈면으로 흘러내려 오전 5시부터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다.

오전 7시 10분께 중부고속도로 충북 음성휴게소 부근의 비탈면 토사가 유실되면서 차량 운행이 양방향 모두 통제되고 있다. 비슷한 시간 중부고속도로 경기 안성 일죽IC 부근에서는 토사가 도로로 밀려들어 나무가 쓰면서 도로가 막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광주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전환

7일간 지역감염 확진자 미발생
방역 당국 지역 감염원 파악·통제

광주시가 오는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전환한다. 최근 7일간 해외 입국자 이외에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방역 당국이 지역 감염원을 파악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6월 27일 지역 감염이 발생하면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150만 시민과 방역 당국이 줄타기의 노력을 한 결과 한 달여 만에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게 됐다"며 "나눔과 연

대의 광주 정신을 보여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지난달 2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뒤 33일 만에 1단계로 전환하면서 각종 행정조치가 해제되거나 기준이 완화된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행정조치가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간격 두기, 명부 작성, 발열 확인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행사 개최가 가능해진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열고 지역 어린이집도 3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장도 관중 입

장이 가능해지지만, 전체 관중석의 10%를 초과해선 안 된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로 기준을 완화하되,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계속 유지해 QR코드 사용 및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역시 현행대로 유지된다.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205명으로, 지난 2일 미국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일주일간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중 중증환자는 3명이며 60병상에 확진자가 입원 중으로, 잔여 병상수는 107병상이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626명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에코힐링 휴양관 건립 조감도.

화순군, 산림헬스케어 서비스 구축 시동

ICT 접목해 힐링 화순 조성 추진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요 증가에 대비해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과 산림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화순군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고 숲길과 산림 치유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역사문화, 농촌체험, 숲길 등 자원을 연계해 '힐링 화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민선 7기 화순군은 산림 휴양·레저 시설 확충, 다양한 숲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복지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림복지 수요

증가... 휴양·치유 기반 확충

화순은 전체 면적의 73.2%가 산림 지역으로 12개 명산 191km 등 숲길, 오감연결길·치유 숲길·치유의 숲 센터·숲속 체험장이 조성된 '만연산 치유의 숲', 백야산·한천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치유 프로그램도 인기가 높다.

올해는 '에코힐링 휴양관' 건립과 전국 최초의 '의료연계형 산림치유 시설' 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천자연휴양림 일대 2500㎡ 규모로 조성될 에코힐링 휴양관 건립에는 3년간 50억 원이 투입된다. 실시설계를 올해 완료하고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부산시,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 사업 진행

200명 모집, 수영구 영도구서 활동

부산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지방경찰청이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산시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활용해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동네 곳곳의 위험 요소와 생활불편 요소를 발굴하는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시니어 마을안전지킴이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지원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운영 지원비를, 부산지방경찰청은 지역경찰서(지구대) 등 수요처 확보와 방법 활동을 지원한다. 일자리 사업 수행은 해당 구·군 시니어클럽에서 맡는다.

올해 사업비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지원하는 3억원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비 5억원(국비 50%·시비 50%)으로 총 8억원이며 부산시는 내년부터 16개 구·군 전 지역에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200명으로 시범사업 대상자인 남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수영구 영도구에서 활동한다.

/부산=하의원 기자 bsmorning@

김천시 저출산 대응 장관상 수상

경북도는 7월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북 대표로 선발된 김천시가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광역 3곳, 기초 8곳 등 총 11건의 사례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한 대회이다.

이날 김천시가 발표한 '산모, 아기 돌봄 100일 대작전' 사업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2020년 이후 출산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산모 아기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이용일수 30일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문봉현 기자

안동시, 경북바이오 2차 산단 조성 본격화

안동시는 지역발전의 염원을 담은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는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일원에 49만 6000㎡ 규모로 조성된다.

경북 산업융합포럼 규제자유특구사업과 연계되어 개발된다.

지난달 31일 공사현장에서는 권영세 안동시장과 시행 및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안전지원제를 올렸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전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서두르지 말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재해 없는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